

“성과급 지급하려고”... 기업 자사주 처분에 개미들만 ‘한숨’

카카오, 자사주 5729주 처분 결정
네이버, 공시 이후 10.08% 하락
주주환원 요구 높아지는 만큼
기업, 주주 가치 제고 영향 고려해야

기업들이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사주 처분, 채무상환용 유상증자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실망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내에서 주주 가치 제고,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부상하는 만큼 주가 흐름을 좌우하는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 성과급 및 퇴직금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처분을 결정한 상장사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들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연말 ‘산타탈리’와 연초 효과에 힘입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11일 이후 현재까지 13.65% 하락했다. 카카오는 지난 11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지급 목적으로 자사주 5729주를 처분



/유투이미지

결정했다. 앞서 4일 네이버도 자사주 처분 공시를 낸 이후로 현재까지 10.08% 하락했다. 물론 동일 기간 코스피지수의 하락률도 1.77%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주가 하락세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주 처분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유통되는 주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국내 증

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만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은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주주 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둔화된 상태에서 자사주가 풀리게 되면 매수주체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가격 하락을 야기할 수 있

는 수급상의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주가의 흐름과 자사주 물량이 풀리는 시기는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움직임은 아직 소극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채무상환 목적이 포함된 유상증자 금액은 총 2조5556억원으로 전년 1조1155억원 대비 93.2%나 증가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 금액은 전년 대비 26.6% 감소했다.

전체 유상증자 금액이 줄었음에도 채무상환 목적의 유상증자 규모가 늘어났다는 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답답지 않은 소식이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량이 증가하는 만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가치는 희석된다. 특히나 미래 투자 목적이 아닌 채무상환식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다가오

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CJ CGV와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기존 주주들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CJ CGV와 SK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 계획 발표 직후 각각 21.1%, 6.08%씩 미끄러졌다. 이후로도 약세를 지속하며 현재까지는 51.74%, 31.72%씩 하락하며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해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아무리 꼭 필요한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과 완벽한 자금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차입, 사채발행과 더불어 비업무용 자산 및 비주력 사업부 매각 등 다양한 옵션도 함께 고려해 유상증자가 최적의 자금조달 방안임을 주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AB자산운용 “6월 금리인하 전망... 채권·헬스케어 종목 투자 추천”

美 1.5% 내외 성장... 고용시장 견조
2분기 말 연준 목표치 2% 근접할 듯
국내 주식시장, 글로벌 시장 영향받아

얼라이언스번스틴(AB)자산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재홍 AB자산운용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은 둔화하겠지만 고용시장이 견조한 데다 물가 압력도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 금리인하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유 매니저는 “올해 같은 경우 미국 경제는 1.5%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유재홍 AB자산운용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여 성장은 둔화가 되지만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받쳐주는 받침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견조한 고용시장이 물가 압력 완화에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최근 3~6개월 미국 물가 상승률의 단기 움직임을 보면 이미 완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분기 말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6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은 그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현금 투자 보다는 채권에 미리 투자해 유지하는 전략이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매니저는 “채권시장 중요 포인트는 금리인하 폭, 시기보다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를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금리 통화정책의 변곡점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투자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주식 시장의 경우 올해는 지

난해 기술주 위주의 쏠렸던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개별종목의 실적 성장에 집중되고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욱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올해 경제성장 강화와 인플레이션 하락, 경제성장 약화와 인플레이션 상승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하락 같은 3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 종목의 우량성에 집중을 해 종목을 선정하고 그러한 종목들로 구성돼 있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은 헬스케어를 추천했다. 이 매니저는 “헬스케어는 작년 대형 기술주에 대한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외가 됐던 업종이었다”면서 “현재 밸류

에이션(가치평가)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고 올해 실적 성장세 역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유망 국가로는 미국을 꼽았다. 미국의 경우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타 시장에 대비해서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니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화두가 됐던 여러 가지 세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나 혹은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의 전환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도 펀더멘탈이 우량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원관희 기자 wkh@

메리츠증권, ‘Bond 365’ 채권종합 서비스로 확대개편

장내·장외 채권 매매 가능해져

메리츠증권은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기사채 전용 투자 서비스였던 ‘Bond 365’를 채권종합 서비스로 내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단기사채뿐 아니라 장내·장외 채권 매매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단기사채는 최소 투자금 1억원 이상 조건으로 거래 가능했지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장내외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채권 상품이 추가돼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Bond 365’에서 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

단기사채 상품들의 경우,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4종과 회사가 엄선한 자산

유통화 단기사채들을 제공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4종은 회사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단기사채로, 만기에 따라 짧게는 7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물중 선택 가능하다.

오직 메리츠증권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각상품별 수익률은 7일물 연 3.65%, 1개월물 연 3.85%, 2개월물 연 3.90%, 3개월물 연 3.95% 등이다.

단기사채 외 새롭게 추가되는 장내·장외 채권 상품은 별도 최소 투자금 없이 상품별 매매가에 따라 원하는 수량만큼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부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채권 개미’ 열풍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이같이 채권 상품을 확대했다.

메리츠증권은 상품 다양화와 함께 고객 편의성제고를 위해 ‘Bond365’의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디자인도 대폭 개선했다.

채권 상품별로는 단기사채, 채권(장외), 채권(장내)가 별도 탭으로 구분돼 원하는 상품별로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하다. 모든 채권 상품은 금리별, 기간별 등 간편한 필터로 검색과 정렬이 가능해 투자자들이 상품별 특성과 금리를 비교하는데 편리하다.

이번 개편에서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에 쏠리고 있는 만큼 채권 투자 정보 제공에도 집중했다. 보유 및 관심 등록한 채권의 최신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Bond365 News’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됐다. /신하은 기자

한투운용 ‘OCIO알아서펀드’ 3종, 수익률 1위

1년 수익률 유형별로 모두 차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3종이 국내 OCIO펀드 34개 상품 중 1년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3종의 상품은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C-Re클래스), 한국투자OCIO-DO알아서수익펀드(C-Re클래스), 한국투자OCIO-DO알아서인컴펀드(C-Re클래스)다.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기준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한국투자OCIO-DO알아서수익펀드, 한국투자OCIO-DO알아서인컴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각각 10.56%, 14.65%, 7.94%로 국내 OCIO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인 6.00%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했다. 6개월 수익률은 각각 7.93%, 7.46%, 8.40%로 확인됐다.

특히 유형별로 모두 1위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OCIO펀드는 투자자별 투자성향과 목적에 따라 중립형(혼합형), 성장형(수익형), 안정형(인컴형)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 성장형은 공격적 투자자, 안정형은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분류된다.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시리즈는 국내 출시된 OCIO펀드 중 각 투자성향별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시리즈 중 대표 펀드 격인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약 420억 규모에서 지난 1월 30일 기준 약 630억 규모로 성장하며 1개월새 200억원 가량 늘었다. /신하은기자